

「웰컴 보드」로 외국인 여행자 여러분에 도쿄를 안내

도쿄메트로(본사:도쿄도 다이토쿠 사장:오쿠 요시미쓰)에서는, 도쿄를 방문하신 외국인 손님을 위해 도쿄의 관광지로 가는 길이나 도쿄메트로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웰컴 보드」를 2013 년 11 월 30 일(토) 부터 긴자선 우에노역 및 마루노우치선 신주쿠역의 개찰구 부근에 차례로 시험적으로 설치합니다.

2013 년의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관민이 일체가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비짓·재팬 사업, 엔화 강세 시정으로 인해 일본여행이 비교적 싸다는 인식이 확대, 항공좌석 공급량 증가 등을 통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1,000 만명 달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 여행자의 이용 확대에 힘쓰고 있는 도쿄메트로에서는, 처음으로 도쿄를 방문하신 외국인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도쿄메트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의 얼굴인 개찰구 부근에「웰컴 보드」를 설치합니다.

「웰컴 보드」는, 영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로, 긴자, 아사쿠사, 신주쿠 등 인기 높은 관광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표를 구입하는 방법이나 운임을 알아보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쿄메트로에서는 도쿄의 안내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편리하고 알기 쉬운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웰컴 보드」의 개요는 별첨과 같습니다.

【우에노역의 설치 이미지】



「웰컴 보드」 개요

1 설치 장소 및 설치 개시일

긴자선 우에노역: 2013년 11월 30일(토)

마루노우치선 신주쿠역: 2013년 12월 3일(화)

2 내용

(1)도쿄메트로 이용 안내

- 지하철 이용 방법
- 도쿄의 지하철에 대해
- 편리한 승차권의 안내(PASMO · 1일 승차권 안내)

(2)도쿄의 관광지로 가는 루트의 안내(신주쿠 · 긴자 · 아사쿠사 등)

- 루트 안내/운임/소요 시간
- Tokyo Travel MAP(도쿄 여행자 지도)

(3)도쿄를 관광하는데 편리한 팸플릿이나 노선도를 배포합니다.

이상